



보도시점 (지 면) 12.18.(수) 조간
(인터넷) 12.17.(화) 12:00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를 위한 외교부-중기부 정책협의회 개최

- 올해 성과 분석 및 향후 해외 진출 지원 전략과 협력 방안 논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외교부(장관 조태열)는 17일(화)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1차 ‘외교부-중기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 정책협의회 개요 >

- ▶ (일시·장소) '24.12.17(화) 15:00~16:05, 외교부 13층 종합상황실(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60)
- ▶ (참석자) 이대희 중기부 기획조정실장,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한국국제협력단·창업진흥원·중소기업진흥공단 본부장급 인사 등
- ▶ (주요내용) MOU* 후속 조치 이행현황 점검 및 성과·계획 공유 등

*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24.4.1)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중기부와 외교부가 체결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으며, 양 부처 실장급을 비롯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 중소기업진흥공단(KOSMES), 창업진흥원(KISED)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달성한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의 올해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 계획을 공유하여 한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세계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올해 양 부처 업무협약을 계기로 운영을 시작한 「재외공관 중소기업 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의 성과를 발표했다. 외교부는 협의체가 설치된 전세계 17개국 25개 공관이 총 46회의 공관장 주재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지 애로 지원 241건, 주재국 현지 정보 제공 401건('24.11.30 기준)을 기록하는 등 한국 기업들의 수출 지원 및 애로 해소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외교부가 소개한 사례에 따르면, 배터리 재제조 기업인 (주)포엔이 독일 현지 공장 부지 확보 및 인허가 획득에 어려움을 겪자 총영사관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정부 및 시정부의 협조를 요청하여 (주)포엔의 공장 설립 인허가 획득을 도왔다.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주)포엔에 비자발급 및 법인 설립 관련 행정사항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프랑크푸르트무역관은 부지 임대 관련 협력이 가능한 현지 기업과의 상담을 주선했다. 이와 같은 복합적인 지원 활동의 결과로, 현재 (주)포엔은 '25년 상반기 현지 공장 가동을 목표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어서 중기부는 '25년 신규 추진 예정인 '재외공관 제안형 글로벌 진출 사업'을 소개하며, 재외공관을 해외 수출지원센터로 활용, 공관이 현지 시장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제안하는 지원사업 모델을 제시했다. 이 사업을 통해 협의체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국내 중소기업들이 현지 진출 확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의 적극적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KOICA와 창업진흥원은 올해 새롭게 시작한 'CTS-TIPS 연계 글로벌 진출지원 사업'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KOICA의 국제개발지원 역량과 창업진흥원의 우수 스타트업 발굴 역량을 결합하여 국제개발협력의 난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의 ODA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금년 10월에 3개의 혁신 스타트업을 첫 번째로 선정했으며, 이들 기업은 앞으로 KOICA의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과 연계된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KOICA와 창업진흥원은 '27년까지 추가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 CTS(Creative Technology Solution,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 혁신 스타트업이 개발 협력 난제에 대한 해법을 찾고, 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사업

**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선도적인 기술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팀을 민간주도로 선발하여 미래유망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프로그램

참석자들은 각 기관들의 전문성과 강점을 토대로 각국의 경제적 특성과 산업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사례를 공유하며, '25년에는 이러한 협력 모델을 더욱 고도화하여 성과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중기부 이대희 기획조정실장은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번 정책협의회를 계기로 중소기업의 글로벌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협력 분야를 지속적으로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가 현지에 진출한 여러 공공기관의 역량을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외에서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중소·벤처기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와 중기부는 양 부처간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협력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양 부처는 현 국정 상황이 중소기업 수출 등 대외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재외공관 및 협의체를 중심으로 상호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담당 부서	외교부 유럽경제외교과	책임자	과 장	이용진 (02-2100-7667)
		담당자	사무관	장진우 (02-2100-6943)
담당 부서	글로벌성장정책관실 국제통상협력과	책임자	과 장	박수민 (044-204-7550)
		담당자	사무관	한경아 (044-204-7476)



2024년 제1차 ‘외교부-중기부 정책협의회’ 계획

1. 회의 개요

- (목적) 외교부-중기부 업무협약(4.1)에 따라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강화를 위한 양 기관 실장급(공동대표) 주재 참여 1차 협의회* 개최
 - * 근거 :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제2조(협력내용)
- (일시장소) '24.12.17(화) 15:00~16:05, 외교부 13층 종합상황실
 - *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60
- (참석대상) 중기부 기획조정실장,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한국국제협력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창업진흥원 본부장급 등 총 16명
- (주요내용) MOU 후속 조치 이행현황 점검 및 성과·계획 공유 등

2. 세부 일정

(사회 : 외교부 유럽경제외교과장)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5:00~15:05	5분 ■ (사전 환담)	9층 경제조정관 집무실
15:05~15:07	2분 (이동)	13층 종합상황실
15:07~15:11	4분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외)유럽경제외교과장
15:11~15:17	6분 ■ 인사말씀 (외교부→중기부)	각 실장
15:17~15:25	8분 ■ ①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 성과	(외)유럽경제외교과장
15:25~15:33	8분 ■ ② '25년 신규사업 운영 계획	(중)국제통상협력과장
15:33~15:54	21분 ■ ③ 기관별 '24년 성과 및 '25년 계획	KOICA-창진원-중진공
15:54~16:04	10분 ■ 기타 건의사항 논의	
16:04~16:05	1분 ■ 기념촬영 및 폐회	

※ 언론 공개여부 : (사전환담) 비공개, (협의회) 인사말씀까지 공개

* 각 기관별 발표분야(안): (KOICA-창진원) KOICA 프로그램 개요와 성과
 (중진공) 국내원팀협의체 현황, 해외거점 운영 성과 및 계획
 (창진원) 재외공관 협업 사업 성과와 계획